

"연극속으로~ 관객속으로~"

2006 제24회 부산연극제

The 24th Busan Theater Festival

2006.4.1(토) ▶ 4.16(일)

The 24th Busan Theater Festival

| 주관 : (사)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

| 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한국연극협회 한국예총부산광역시연합회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KBS 부산방송총국 MBC 부산문화방송

PSB 부산방송 BBS 부산불교방송 CBS부산방송 부산일보 국제신문

| 협찬 : KYOBO 교보생명 부산은행 MEGA MART OPS 오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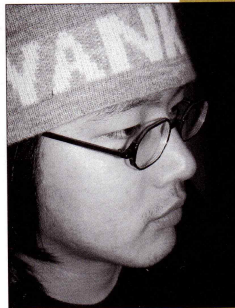
www.bstheater.or.kr

경연 작품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PLAY5 (Mankind History)

4.13(목) 19:30
14(금) 16:30 19:30

부산문화회관중극장



작·연출 / 김지용

연출의도

진정한 발전이란 과연 무엇인가?
과연 우리 인간은 발전하긴 한 것인가?
여전히 우리는 부의 축적이라는 인생최대의 목적에 맞춰
개미처럼 일하고 있을 따름이다.
문명이 진보하고 과학이 발전하였으나
삶의 형태는 변한 것이 없는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개혁과 전쟁, 안정과 타협, 그 밖에 여러 요소들로 인하여
그 형태는 변화하여 왔으나
그것이 과연 진화라고 부를 만한 것인지
나는 의문스럽다.

이번 작품에서 나는 항상 변화와 개혁을 원하지만
운명의 굴레에 안주하는
인간의 절망이 그려지길 원한다.

작품줄거리

네오와 쿠데타는 열심히 노력하여도 변하지 않는
차진들의 삶에 회의를 느낀다.

그런 모습을 본 시스템은 그들에게 흥미를 느끼게 되고
혁명을 일으키도록 유도한다.

네오는 그의 연인인 에테르에게 작별을 고하고
낙원으로 향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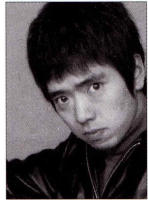
남몰래 에테르를 사랑했던 쿠데타는
네오를 배반해 기억을 잃게 만든다.

쿠데타가 일으킨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에테르는 자신의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총을 쏘게 되지만
자신의 연인인 네오를 알아보지 못한 채
그 총탄은 오히려 네오를 죽게 한다.

CAST



염준필 | 네오



김성훈 | 쿠데타



김성경 | 에테르



이현주 |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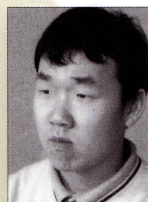
유상훈 | 도덕



문지연 | 시장



이진희 | 자본



윤순환 | 군대



이윤희 | 코러스



조재호 | 코러스



조창범 | 코러스



배명진 | 코러스



장민 | 코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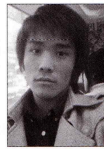
신승우 | 코러스



강지현 | 코러스



양지환 | 코러스



강범수 | 코러스



장성호 | 코러스



서재홍 | 코러스

STAFF



홍성모 | 대표



김성경 | 기획



최은영 | 기획



김보영 | 안무



전현미 | 작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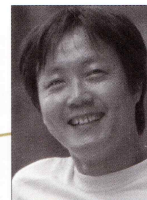
이선주 | 음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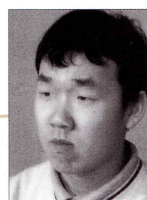
하현관 | 무대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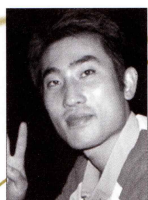
장명갑 | 무대장치



오정국 | 조명디자인



윤순환 | 무대장치



박영호 | 무대감독



박은주 | 분장



이국희 | 소품



김은엽 | 의상